5장

조선 전기의 지도

1. 전국도의 제작

한 국가의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그린 지도를 '전국도(全國圖)' 또는 '전도(全圖)' 라 부른다. 전국도는 우리 국토를 표현하고 상징하는 지도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이다. 전국도에는 선조들의 국토 인식, 사상 체계가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 기술, 지도제작 수준, 예술적 표현, 사회적 수요와 분위기, 사상적 공감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전국도를 '조선전도' 라 부르며,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선 초기부터 국가에서 정확한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하였던 사실적이고 정확한 조선전도이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지도가 이회(李薈)의 『팔도도(八道圖)』 그리고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東國地圖)』이다. 둘째는 국가에서 만든 지리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민간에서 지도를 만들 때 원형이 되었던 간략한 형태의 '동람도(東覽圖)' 이다.

1) 동국지도

현전하는 우리나라의 단독 고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이다. 더욱이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유산을 잃어버린 때문에 현재까지 남은 조선 전기의 지도도 극히 적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 전기에 지도제작이 활발했음은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을 개창함에 따라 조선 초기에는 많은 지리적, 지역적 변화가 있었다.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새로운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구조망을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고구려 고토 회복을 명분으로 북방지역의 영토의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 말 의주와 영흥만을 잇는 선을 북한계선으로 했던 국경도 변화되어 평안도 지역에 사군(四郡), 함경도 지역에 육진(六鎭)이 설치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이동, 지방행정구역의 조정, 그에 따른 세금과 군역의 재배치 등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와 지리지의 제작이 요구되었다. 또한 고려시대에 비해 중앙집권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 지역, 각 지역의 주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으며, 조선 초기의 활발한 지도제작으로 이어졌다.

(1) 사실적 조선전도

① 이회(李薈)의 『팔도도(八道圖)』

'동람도' 형 지도가 민간에서 제작, 유행했던 반면에, 사실적 조선전도는 국가나 관청에서 제작, 사용했던 과학적 지도제작의 노력을 보여 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2년에 의정부에서 '본국지도(本國地圖)'를 진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날은 태종의 탄신일이었다. 태종의 즉위 2년 탄신일이자 조선 건국 후 10년에 맞추어 진헌한 이 지도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훗날 성종대에 양성지의 상소문에 의하면[1], 이 지도는 이회의 『팔도도』가 확실하다. 지도의 실물은 전하지 않으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크고 자세하게 그려진 조선 부분 지도를 통해 당시 조선전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이회는 1402년에 『팔도도』를 진헌하였으며, 같은 해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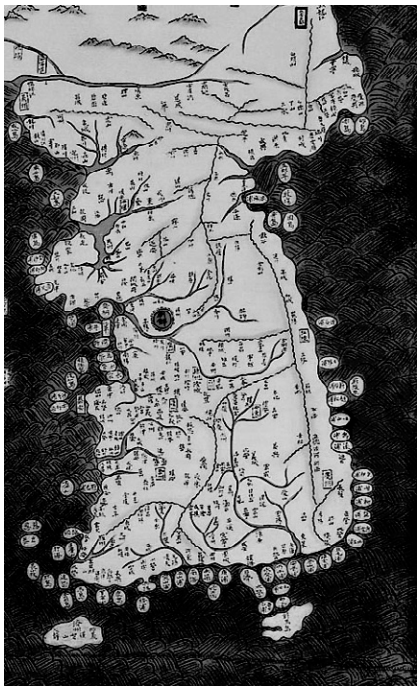
1) 성종대에 양성지는 상소를 통해 조선 초기에 제작되었던 지도들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지도로 고려의 중엽 이전에는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가 있었고, 아조(我朝)의 처음에는 이회(李薈)의 팔도도(八道圖)가 있었으며, 세종조에는 정척(鄭陟)의 팔도도(八道圖)와 양계(兩界)의 대도(大圖)·소도(小圖) 등이 있었고, 세조조에는 신(臣)이 만들어서 진상한 팔도도(八道圖)와 여연(閭延)·무창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 부분 지도(그림 6-1)는 다른 대륙이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그려져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조선의 윤곽이 정확하고, 동서 비례의 균형도 적절하여 고려 말~조선 초의 우리나라 지도의 제작수준을 알려 준다. 이렇게 지도의 크기가 크게 그려짐으로써 세계지도임에도 조선부분에는 조선의 행정지명들을 기재할 수 있었다. 즉 용곡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군현명을, 7개의 병마절도사영 중 5개, 9개의 수군절도사영 중 5개, 병마첨절제사, 병마만호, 수군첨절제사 수군만호 등이 파견된 진포(鎭浦) 등이 기재되어 있다(ケネス・ロビンソン, 2007,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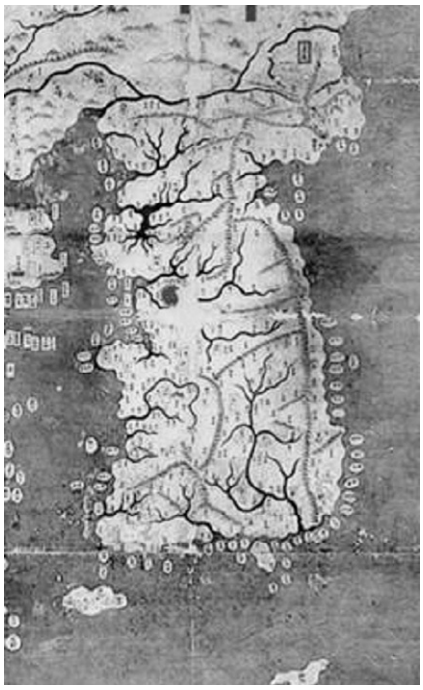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조선지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하천의 굴곡이 없이 직선상으로 되어 있다. 둘째 압록강의 상류와 두만강 유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모양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동서의 폭과 남북의 길이의 비율이 현재의 지도와 큰 차이 없이 되어 있고, 서해안의 해안선도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동해안에서도 동한만(東韓灣), 울산만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 울릉도의 위치는 너무 해안에 접근되어 있으나 제주도와 대마도의 위치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셋째, 하천과 산맥의 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의 하계망은 상세하고 거의 현재지도와 다름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대동강・압록강・두만강의 하계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부정확하다. 산맥의 표시는 놀랄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하다. 산맥의 표시방법이나 산맥과 하계망이 자세하고 또 정확한 것은 고려시대의 지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에 성하였던 풍수사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이찬, 1991, 331~332).

(茂昌)・우예(虞芮)의 삼읍도(三邑圖)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신이 만들어서 진상하는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제주 삼읍도(濟州三邑圖)와 안철손(安哲孫)이 만든 연해조운도(沿海漕運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유소(魚有沼)가 만든 영안도연변도(永安道沿邊圖)와 이순숙(李淳叔)이 만든 평안도연변도(平安道沿邊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삼도(下三道)의 감사영(監司營)에도 각기 도(圖)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승(倭僧) 도안(道安)이 만든 일본・유구국도(日本琉球國圖)와 대명천하도(大明天下圖)도 비단과 종이로 만든 족자가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든 지리지 안에는 팔도 주군도(八道州郡圖)・팔도산천도(八道山川圖)・팔도각일양계도(八道各一兩界圖)・요동도(遼東圖)・일본도(日本圖)・대명도(大明圖)가 있습니다. 위의 것에서 가장 긴요한 것들을 모두 관에서 거두어 홍문관에 비장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도 한결같이 관에서 거두어 의정부에 보관하게 하면 군국(軍國)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성종실록, 성종 13년 2월 임자)"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태종 2) 대사성 권근(權近),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李茂), 검상 이회(李?)가 만든 세계지도이나, 현재 원도는 존재하지 않고 후에 필사된 사본 4종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모사본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사이에 모사,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개의 사본 중 쿄오토시 류코쿠대학[龍谷大]에 소장된 용곡대본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에 1988년에 발견된 큐슈 시마바라시[島原市] 혼코지[本光寺]에 소장된 본광사본, 그리고 텐리시[天理市]의 텐리대[天理大]에 소장된 천리대본, 큐슈 구마모토시[熊本市] 혼묘지[本妙寺]에 소장된 본묘사본 등이 있다. 이들 지도를 약칭해 각각 용곡도(龍谷圖), 본광사도(本光寺圖), 천리도(天理圖), 본묘사도(本妙寺圖)로도 부른다. 이하 본문 중에도 약칭을 사용하였다.



용곡대본



본광사본

[그림 5-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중 조선 부분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의 부정확성과 북부지방이 축소되어 있는 점은 이 지도의 약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도제작 30여 년 후인 세종대에 4군 6진의 설치가 완성된 평안도 동북부, 함경도 중부 이북 지역이 조선 초에는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던 점,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700여 년 동안 여진족의 거주지였음을 고려하면, 정치적 · 실질적 이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산지를 선으로 표현하여 맥세(脈勢)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지도의 독특한 표현으로 후대의 『대동여지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도표현의 바탕에는 국토를 유기체로 인식하고, 산지를 개별 봉우리가 아닌 연속된 줄기로 이해하여 국토의 뼈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연관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조선 전기의 태종, 세종, 세조는 전국 공간의 재편, 영토의 개척,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地圖)와 지지(地誌) 편찬에 힘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도와 지리지를 조직적

으로 제작, 편찬하도록 하였다. 태종대인 1413년(태종 13)에는 지방행정제도인 군현제(郡縣制)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을 확정함으로써 조선적인 행정의 공간구조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에서 본국지도의 도리(道里)·식수(息數)를 그린 두 족자를 바쳤다(『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갑술)"는 기록은 군현제를 실시한 1413년에 거리까지 표시된 더욱 상세한 조선전도를 제작했음을 보여 준다. 조선 건국 후 20여년 만에 정비된 지방행정체계를 지도에 담아 기록한 것이다.

세종대에는 각 군현 단위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전국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세종 14(1432)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4군 6진의 개척 등 영토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새로 회복한 지역의 지도제작도 필요하였다.

세종 16(1434)년에 세종은 관찰사 김종서와 병마절도사 성달생에게 전지하기를, 옛 문헌과 역사·지리에 해박한 사람들에게 물어, 함길도 전역의 지도를 완성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폭을 복사하여 감영 및 변방 군진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이어 세종은 호조에 명하여 "이 앞서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가 자못 서로 틀린 곳이 꽤 있으므로 이제 이미 고쳐 그렸으니, 각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의 향배처소(向排處所)와 산천내맥·도로의 원근리수(遠近里數)와 그 사면의 이웃 고을의 사표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군에 차례로 폭을 이어 올려 보내서 참고에 갖추도록 하라"(『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경자)고 하였다. 세종의 지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는 글이다.

또한 정척(鄭陟, 1390~1475)은 세종 18(1436)년에 상지관(相地官)과 화공(畵工)들을 데리고 함길도·평안도·황해도 등을 자세히 살펴서 산천형세를 그려 오도록 명을 받았다(『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 3월 을축).

세종 20(1440)년에는 평안도도절제사 이징옥(李澄玉)·병조판서 황보인·도승지 성염조(成念祖)·우부승지 이승손(李承孫)을 불러서 북방 방어책을 의논할 때 지도를 참고하면서 조치하였으며(『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8월 기묘), 경상도 감사가 바친 바다와 섬의 지도를 펴놓고 수로(水路)의 굽고 곧은 것을 의논하기도 하였으니(『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 4월 임진), 지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도 지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문종은 즉위한 해(1450년)에 "우리나

라의 여러 도의 군 · 읍은 서로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비록 혹은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멀고 가까움이 애매하여 조치하기를 잘못할까 두렵다. 각도로 하여금 주 · 군 간의 거리의 이수(里數)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참고하여 지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였다(『문종실록』 권5, 즉위년 12월 무술). 이듬해에도 예조참판 정척을 불러, "전에 올린 평안도의 지도는 내용이 자세하기 때문이 너무 커서 펴보기에 어렵다. 그 지도는 의정부에 간직하고, 주진(州鎭) · 요해(要害) · 명산 · 대천을 대략 그려 바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라(『문종실록』 권8, 문종 원년 7월 병진)"하였다.

단종 1(1453)년에 수양대군(후의 세조)은 정인지(鄭麟趾)에게 조선도(朝鮮圖), 팔도각도(八道各圖), 주부군현도(州府郡縣各圖) 등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정인지는 양성지를 지도제작의 적임자로 천거하여 양성지가 이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단종실록』 권8, 단종 원년 10월 경자). 세조는 즉위한 직후인 세조 원년(1455)년 8월에 양성지에게 지리지를 편찬하고 지도를 작성할 것을 명했다.

조선 초기부터 지속된 다양한 지도제작 사업은 세조 9(1463)년에 정척과 양성지가 『동국지도』를 완성하여 진헌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지도는 정척이 만든 북쪽의 『양계도(兩界圖)』와 양성지가 만든 『하삼도지도(下三道地圖)』를 합해 우리나라 전도를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의 국가지도 제작 사업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인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와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1557년~1558년)의 두 종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하며,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 『조선국회도(朝鮮國繪圖)』 등이 남아 있어 지도의 내용과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들은 태종 · 세종대에 행정 ·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세조대에 "본국의 지도를 가지고 주 · 군의 합병을 논의(『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11월 임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국가의 제도 정비와 행정 등의 기본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이기도 했다. 지도제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도와 경도의 측정이다. 위도는 북극성의 고도로도 측정할 수 있고 태양고도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대에 북극고도를 측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는 『관상감일기(觀象監日記)』를 인용하여 세종대에 역관(曆官) 윤사웅 · 최천구 · 이재림을 각각 강화도의 마니산, 갑산부의 백두산, 제주목의 한라산에 파견하여 그곳의 북극고도를 측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이찬, 1991, 333). 측정사실은 『관상감일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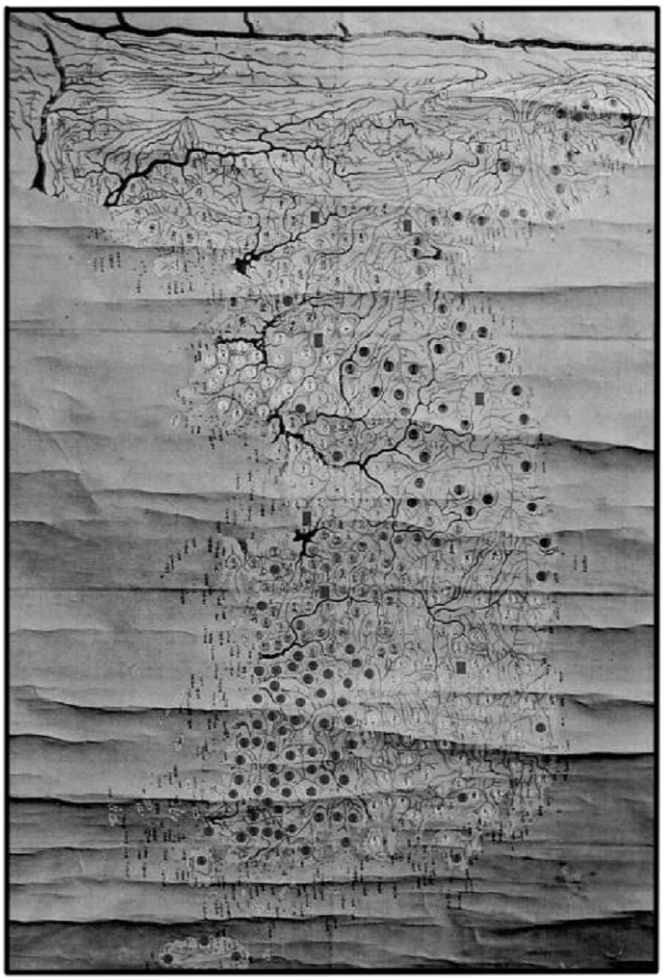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측정치는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한국과학사학회 편, 1982, 362). 또한 세종 19(1437)년에 천체관측을 위한 측각기로 위도 측량에 사용이 가능한 대소 간의(間儀)와 정교한 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 1441년에는 거리 측정기구인 기리고차(記里鼓車)를 만들고, 혼천의(渾天儀)를 천문용 시계로 사용하였으며,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의 설치 등 과학, 천문기술의 발달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지도의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467년에는 방위와 원근을 측량하는 의기(儀器)로서, 소박한 평판과 삼각측량 기구로 생각되는 인지의(印地儀)를 발명하는 등 지도제작을 위한 과학기술의 뒷받침을 받아 지도제작에도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의 조선지도를 통해 본 이회의 『팔도도』와 비교해 보면 지도의 형태나 내용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압록강와 두만강의 유로와 상류 지방이 자세하게 개선되었으며, 하계망과 산계도 많은 진전을 보았다. 또한 인문에 관한 내용이 풍부해져, 교통로, 국도(國都)까지의 일정과 거리, 항구에는 배를 그려 표시하고, 행정중심지와 병영 · 수영을 색깔로 구분해 한층 체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 주군현은 도별로 색을 달리했다. 일본 소장 내각본에 의하면, 서울 · 개성 · 행영 · 수영 · 각도의 관찰사영은 적색, 경기는 짙은황색, 충청은 엷은 황색, 전라도는 적색, 경상도는 복숭아색, 황해도는 백색, 강원도는 녹색, 평안도는 엷은 회색, 함경도는 청색이다(이찬, 1991, 335).

(2) '동람도' 형 전국도

전국도의 다른 유형인 '동람도(東覽圖)' 도 조선 전기에 제작되어 그 영향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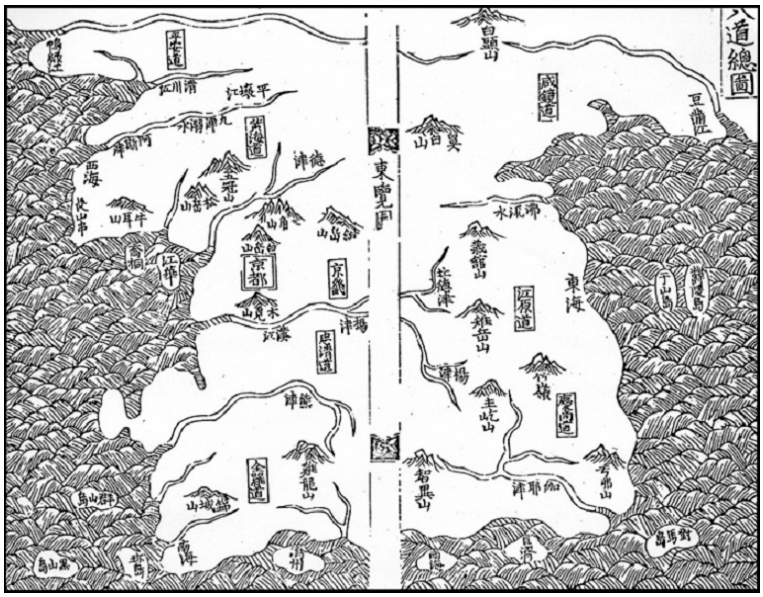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초기부터 지속된 관찬지리지 특히 전국지리지 편찬사업의 결실로서,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불린다. 성종 12(1481)년에 완성된 이후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전 55권으로 증보(1530년), 간행(1531년)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지리지에는 조선전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8도의 도별지도 등 총 9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지도와 지지의 결합을 보여 준다. 이 지도의 판심(版心)에 '동람도(東覽圖)' 라고 쓰여 있어 이 유형의 지도를 '동람도' 로 불러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지도는 매우 간략한 형태였으나 목판으로 인쇄하여 널리 보급된 책에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에



[그림 5-2] 일본 내각문고 소장『조선국회도』

민간에서는 지도만을 모아 따로 인쇄본으로 간행하거나 필사본으로 모사하여 지도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종류가 전한다.

'동람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규격이 작은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지도에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도 없었다.『세종실록』지리지 등 세종대의 지리지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편찬된 지리지로서, 지역을 파악하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군사 · 행정 · 경제 등과 같은 실용적 측면에



[그림 5-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전국도, 「팔도총도」

비중이 주어졌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국적 지배체제의 확립 이후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우세하여 시문(詩文) · 인물 · 예속(禮俗) · 고적 등과 같은 항목이 강화되었다.

'동람도' 에도 이러한 지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첫머리에 실린 전국도인 「팔도총도」(그림 5-3)는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의 제사처인 악(嶽) · 해(海) · 독(瀆)과 명산대천(名山大川) 등을 표시한 것이다. 자연신인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 왔으며, 조선 초기에도 고려시대의 유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조선의 산천 제사제는 태종 14(1414)년에 확립되어, 악 · 해 · 독을 중사(中祀)로 하고, 명산대천에 소사(小祀)를 지냈다.

「팔도총도」에 그려져 있는 산천은 국가에서 중사와 소사를 지내는 곳이다. 악(嶽)에는 지리산(智異山) · 삼각산(三角山) · 송악산(松嶽山) · 비백산(鼻白山) 등이 있고, 해(海)에는 양양의 동해(東海), 나주의 남해(南海), 풍천의 서해(西海)가 있으며, 독(瀆)에는 공주의 웅진(熊津), 양산의 가야진(伽倻津), 한강(漢江), 장단의 덕진(德津), 평양강(平壤江), 압록강(鴨綠江), 두만강(豆滿江) 등이 있다. 그외 목멱산(木覓山), 오관산(五冠山), 감악산(紺岳山), 계룡산(鷄龍山), 죽령산(竹嶺山),

주흘산(主屹山), 장산곶(長山串), 아사진(阿斯津), 청천강(淸川江), 구진익수(九津溺水) 등이 명산대천에 해당한다.

따라서 「팔도총도」의 성격은 전국적인 산천지세의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기보다는 국가의 의례(儀禮)와 관련되어 산천제를 지내는 곳만을 그린 일종의 주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례로 서해 · 동해 · 남해 등 바다 이름이 모두 바다에 쓰여 있지 않고, 육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서해신 · 동해신 · 남해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는 제사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도의 제작이 국방과 같은 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이념을 확립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팔도총도」는 동서가 남북의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한반도 전체가 남북으로 압축된 느낌을 주며, 특히 북부지방의 왜곡이 심하다. 이것은 책 크기에 지도를 맞추어 그렸기 때문이다. 섬으로 울릉도와 우산도(지금의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치는 반대로 되어 있다.

[그림 5-4]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주: '동람도' 의 변형된 채색필사본, 19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이찬(1991) 93.

'동람도'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많이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보다도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후대에 계속 이어져 조선 말기까지 조선전도 지도제작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현전하는 '동람도'들은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동국지도』(양보경, 1991), 서울역사박물관과 영남대박물관에 『동람도』 등이 남아 있어 (서울역사박물관, 2006;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팔도 각 군현의 이름과 설명, 산맥이 추가되는 등 후대에 모사되는 '동람도' 유형의 지도들은 대형으로 보완되기도 하지만(그림 5-4), 기본틀은 큰 변화없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양보경, 2004, 44). 그 밖에 많은 필사본 지도들이 기본형 '동람도'의 모습을 보완, 왜곡, 변형된 형태로 전하고 있어,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의 푸근하고 정겨운 맛을 느끼게 한다.

양보경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

양보경, 1991, "목판본 동국지도의 편찬시기와 의의," 규장각 14, 서울대학교 도서관, 1-28.

_____, 2004, "조선전기의 조선전도," 측량, 2004(7 · 8), 테마기행/지도이야기(4), 한국측량협회, 34-40.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도판편, 자료편).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이찬, 1979, "동람도의 특성과 지도발달사에서의 위치," 진단학보 46 · 47합집, 44-51.

____, 1980, "한국 지도 발달사," 한국지리(총론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107-126.

____, 1989,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측지학회지, 7(2), 69-84.

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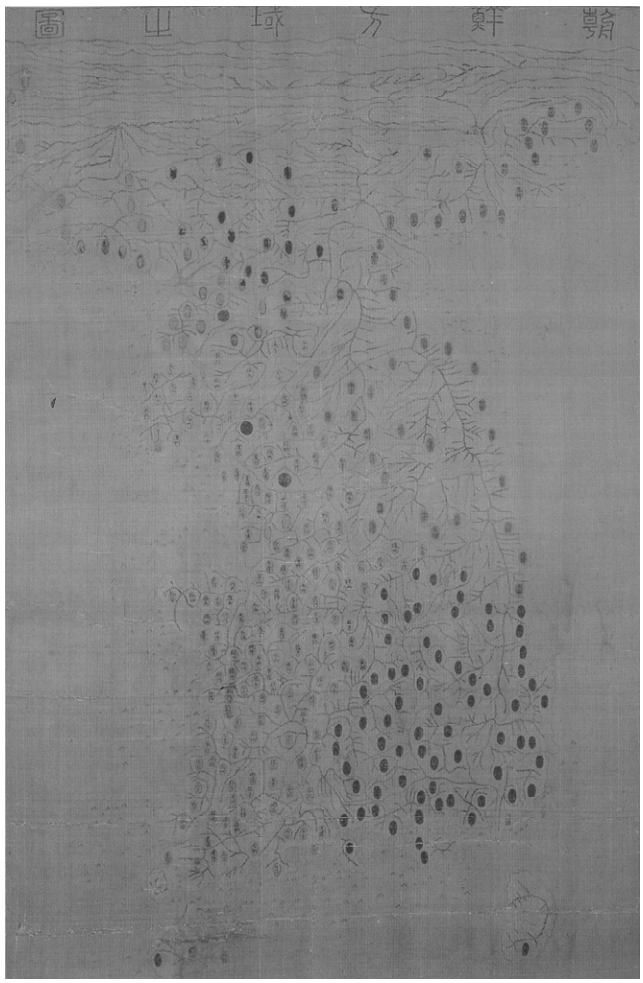
한국과학사학회 편, 1982, 서운관지 · 국조역상고,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ケネス・ロビンソン, 2007, "朝鮮で製作された二枚の世界圖における朝鮮圖," 藤井讓治 · 杉山正明 · 金田章裕, 大地の肖像—地圖が語る世界』,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65-281.

2) 조선방역도

(1) 『조선방역도』 제작시기

이 지도는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동국지도』의 전통을 이어 명종 12(1557)년에 제용감(濟用監)에서 제작한 듯하다. 제용감에서는 이 지도를 전국 8도의 진상품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때 왜군에 약탈되어 대마도 종가(宗家)에 소장되어 있었다. 1930년대



[그림 5-5] 『조선방역도』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에 관계된 사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의 종가문서도 덕혜옹주의 부군이었던 종무지(宗武志)로부터 입수하였다.[1] 이 지도는 대마도 종가문서와 함께 수집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 관리하였다.[2]

이 지도는 상단에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라고 횡서(橫書)하고 중심부에 조선전도를 그렸으며 그 하단에는 제작자의 좌목(座目)이 있다. 이러한 양식은 16세기 『계회도(契會圖)』의 전형적인 제작양식인데(安輝濬, 1990), 고지도 중에 이런 양식으로 그려진 것으로는 『조선방역도』가 유일하다. 이 지도의 제작자의 좌목을 분석해 보면 이 지도의 제작 관청은 정3품아문임을 알 수 있다. 정3품아문으로는 『경국대전』에 31개 관청이 있다.[3] 그러나 좌목에 나타난 9명의 관원을 정원으로 삼고 있는 관청은 제용감과 선공감(繕工監)밖에 없다. 그런데 선공감은 전첨정(前僉正)이었던 박빈(朴蘋)이 전출해 간 관청이므로 이 지도는 제용감에서 전국의 공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의 제작시기는 다음 세 가지의 사실로 보아 명종 12(1557)년 8월부터 명종 13(1558)년 2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

① 유신현(惟新縣) 치폐(置廢) 경위

이 지도는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8도 주현을 그린 전국도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주현 명칭을 8도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오행사상의 5방색 원칙에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는 적색, 충청도는 황색, 경기도는 연황색이며, 황해도는 백색, 강원도는 연록색, 함경도는 청색, 평안도는 녹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충주가 유신현(惟新縣)으로 표기되어 있다.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된 시기는 명종 4(1549)년부터 선조 즉위년(1567)까지의 19년간이다. 충주목이 유신현으로 강등당한 것은 이홍윤(李洪胤)의 옥사 때문이었다. 이 옥사는 이홍윤의 형인 이홍남(李洪男)의 고변으로

1) 국사편찬위원회 전 위원장 崔永禧 씨의 증언.

2) 1923년 조선사편찬위원이었던 가야하라 쇼조(栢原昌三)의 대마도 사료 채방(採訪) 복명서(삽도 4)에 의하면, 대마도에는 『조선도(朝鮮圖)』 1권, 『동국지도(東國地圖)』 1권, 강원 · 전라 · 경상 · 경기 · 황해 · 함경도 등의 지도 6매, 조선지도 1권 등이 있었다고 한다. 맨 나중의 조선지도 1권은 채색지도로서 만력(萬曆) 이전에 제작된 지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도는 아마 『조선방역도』를 지칭할 것이다.

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條.

시작되어 1개월간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충청도가 청홍도(淸洪道)로 개명되며 충주목은 유신현으로 강등당하였다.

그 후 선조가 즉위한 후 대신들이 "충주는 지역이 넓고 문물이 융성하여 현감이 통치하기에는 벅차다"고 주청하여 충주목으로 복호되었다.[4]

이와 같이 충주가 유신현으로 불린 기간은 명종 4(1549)년부터 선조 즉위년(1567)까지 19년 동안이다. 이 지도에서 충주가 유신현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이 기간 안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량진(花梁鎭)에 신설된 경기수영

『조선방역도』에 경기도 수영이 남양만의 화량진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수영은 선초에 설치하였다가 성종 16(1485)년에 폐지된다.[5] 그러나 삼포왜변을 비롯하여 사량진왜변 등 왜구가 다시 창궐하고 해안가를 노략질하자 조정에서는 다시 수군을 강화하고 군진을 보강하였다. 명종 11(1556)년에 경기수영을 남양만의 화량진에 신설하였다.[6] 이는 명종 10(1555)년에 있었던 을묘왜변 이후 취해진 수군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이 지도에 경기수영이 화량진에 표기된 것은 이 지도가 명종 11(1556)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③ 좌목(座目)에 나타난 제작자들의 활동시기

가) 정(正) 이이(李珥)

이이는 가평인이며 그의 부친은 통훈대부로 안음현감을 지낸 이장경(李長卿)이다. 그는 조선시대 청화요직인 홍문관 · 사간원 · 사헌부 등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중종 23(1528)년에 홍문관 저작랑(著作郎)에 임명되었으며[7] 중종 29(1534)년 2월에는 사간원 정언(正言)에 승진되고[8] 그 해 11월에는 사헌부 지평으로 다시 승진되었다.[9] 중종 30(1535)년에는 봉정대부(奉正大夫)로서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다.[10] 그 후 그는 중종 35(1540)년에는 외관인 단양군수로 재직하였다.[11] 좌목

4) 『宣祖實錄』 卷1, 卽位年 10月 癸巳, (21)177a~b.
5) 『成宗實錄』 卷185, 16年 11月 乙亥, (11)78b.
6) 『明宗實錄』 卷20, 11年 正月 甲子, (20)317b~c.
7) 『中宗實錄』 卷62, 23年 7月 庚辰, (17)4b.
8) 『中宗實錄』 卷77, 29年 閏2月 庚戌, (17)502c.
9) 『中宗實錄』 卷78, 29年 11月 戊辰, (17)544d.
10) 『中宗實錄』 卷79, 30年 6月 乙巳, (17)591a.

에 나오는 대로 명종 12(1557)년경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로서 제용감정(濟用監正)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가 이 지도를 만드는 책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없고 또 그의 족보에 의하더라도 그의 후손이 절손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나) 부정(副正) 윤위(尹緯)

윤위는 중종비인 장경왕후의 조카로서 윤원필(尹元弼)의 아들이고 파평인이다. 그는 평택현감에 임명되었는데 그 고을이 피폐하다고 병을 빙자하여 부임하지 않았다가 탄핵을 당하였다.[12] 그 후 명종 5(1550)년에 형조정랑에 임명되었으며[13] 명종 15(1560)년에는 성천부사,[14] 명종 18(1563)년에는 춘천부사로 활동한 인물이다.[15]

다) 첨정(僉正) 윤확(尹確)

윤확도 파평인이다. 그는 명종 원년(1546)에 정5품인 사온서령으로 근무하였으며[16] 명종 6(1551)년에는 내승(內乘)으로 활약하였다.[17]

라) 전첨정(前僉正) 박빈(朴頻)

박빈은 밀양인으로 이 지도를 만들던 명종 12(1557)년경에는 선공감정(繕工監正)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부친 박광영(朴光榮)은 중종 29(1534)년에 형조참판을 역임하였고[18] 중종 31(1536)년에는 경주부윤을 역임하였다.[19]

마) 전첨정(前僉正) 안사웅(安士雄)

안사웅은 광주인으로 그의 부친은 안자흠(安子欽)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였고 청렴결백하였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그의 형과 동생이 일찍 죽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살면서 돌보았다.

---

11) 『中宗實錄』 卷94, 35年 12月 戊寅, (18)433a.
12) 『明宗實錄』 卷2, 卽位年 12月 庚寅, (19)371b.
13) 『明宗實錄』 卷10, 5年 10月 壬申, (19)723d.
14) 『明宗實錄』 卷26, 15年 2月 丁未, (20)543c.
15) 『明宗實錄』 卷29, 18年 9月 甲辰, (20)669c~d.
16) 『明宗實錄』 卷4, 元年 9月 乙亥, (19)457a.
17) 『明宗實錄』 卷12, 6年 11月 甲午, (20)57c.
18) 『中宗實錄』 卷78, 29年 12月 乙未, (17)557c.
19) 『中宗實錄』 卷83, 31年 12月 丁未, (18)10b.

그리고 조카들을 먼저 결혼시킨 후에야 자기 자식들을 성혼시켰다.[20] 그는 명종 11(1556)년에 정4품직인 봉정대부(奉正大夫)로서 사헌부 장령으로 근무하였다.[21] 그가 종3품관인 중훈대부(中訓大夫)로서 사간원 사간에 임명된 것은 명종 13(1558)년 2월의 일이었다.[22] 이 지도를 만들 당시에는 봉정대부로서 내첨시(內贍寺) 부정(副正)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명종 11년부터 명종 13년 2월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그는 명종 14(1559)년에 사헌부 집의,[23] 명종 15(1560)년에는 정3품관인 승정원 동부승지,[24] 명종 16(1561)년에는 병조참의로 일했다.[25]

바) 유지선(柳智善)

본 좌목 중 행적이 가장 뚜렷한 인물인 유지선은 봉사(奉事) 유강(柳岡)의 부친이다. 유지선은 중종 30(1535)년에 홍문관 저작랑으로 임명되었으며[26] 중종 33(1538)년에는 봉상시(奉常寺) 판관(判官)으로 승차되었고[27] 중종 36(1541)년에는 홍문록(弘文錄)에 피택(被擇)되었으며[28] 중종 39(1544)년에는 종성부사를 역임하였다.[29] 명종 3(1548)년에는 사간원 대사간이 되고[30] 승정원의 동부승지를 거쳐[31] 의정부 참찬이 되었다.[32] 명종 5(1550)년에는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33] 그 후 병조참의, 병조참지[34]를 거쳐 명종 10(1555)년에는 장예원(掌禮院) 판결사(判決事)로 일하였고[35] 명종 12(1557)년에는 홍청도 감사로 근무하였다.[36]

그가 이 지도의 좌목에 있는 형조참판에 임명되는 것은 명종 12(1557)년 8월이다.[37] 그는 명종

20) 『明宗實錄』 卷23, 12年 7月 乙亥, (20)429b.
21) 『明宗實錄』 卷20, 11年 5月 乙亥, (20)340d.
22) 『明宗實錄』 卷24, 13年 2月 丙戌, (20)459a.
23) 『明宗實錄』 卷25, 14年 4月 甲子, (20)511c.
24) 『明宗實錄』 卷26, 15年 4月 辛亥, (20)549b.
25) 『明宗實錄』 卷27, 16年 9月 戊申, (20)602b.
26) 『中宗實錄』 卷79, 30年 3月 己卯, (17)577d.
27) 『中宗實錄』 卷86, 33年 正月 乙未, (18)159a.
28) 『中宗實錄』 卷94, 36年 3月 丙午, (18)450d.
29) 『中宗實錄』 卷101, 39年 正月 庚戌, (19)34b.
30) 『明宗實錄』 卷7, 3年 2月 丙午, (19)560b.
31) 『明宗實錄』 卷7, 3年 3月 己丑, (19)575c.
32) 『明宗實錄』 卷8, 3年 9月 乙亥, (19)613c.
33) 『明宗實錄』 卷10, 5年 5月 癸亥, (19)687d.
34) 『明宗實錄』 卷10, 5年 6月 丁酉, (19)701c; 卷11, 6年 2月 庚申, (20)9d.
35) 『明宗實錄』 卷19, 10年 12月 癸巳, (20)314d.
36) 『明宗實錄』 卷22, 12年 2月 丁未, (20)394d.
37) 『明宗實錄』 卷23, 12年 8月 丁未, (20)436d.

15(1560)년 정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38] 사간원의 탄핵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명종 15(1560)년 7월에 황해도 관찰사로 나아갔다.[39] 이때는 임꺽정이 횡행할 때인데 그를 체포하지 못하여 4개월 만인 11월에 교체되었다.[40] 그 후 그는 선조 6(1573)년에 개성유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41] 그러므로 그가 이 좌목에 나타난 대로 형조참판에 있었던 시기는 명종 12(1557)년 8월부터 명종 15(1560)년 7월까지의 3년 간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 지도의 좌목에 나타난 인물 중 행적이 뚜렷한 인물은 안사웅과 유지선이다. 유지선이 이 좌목에 있는 형조참판으로 있었던 시기는 명종 12년부터 명종 15년까지의 3년 간이다. 이 시기는 안사웅의 행적으로 더욱 좁힐 수 있다. 좌목에 의하면 안사웅이 봉정대부로 있었던 시기는 명종 11년 5월부터 명종 13년 2월 사이이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이 지도는 명종 12(1557)년 8월부터 명종 13(1558)년 2월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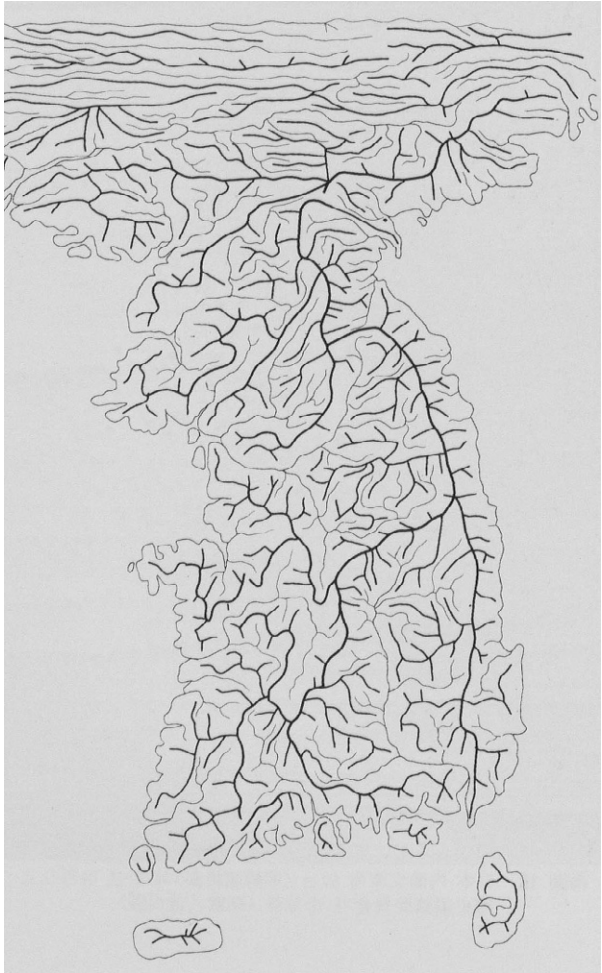
(2) 『조선방역도』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

이 지도의 크기는 전체가 가로 63cm이고 세로는 138cm이다. 좌목을 제외한 조선전도 부분만은 가로가 63cm이고 세로는 98.5cm이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주척(周尺)이 21.04cm이므로(박흥수, 1967), 이 척도(尺度)에 의하면 가로가 3척이고 세로는 4.5척 정도이다. 이 지도의 바탕은 비단이며 채색안료로 그렸다. 평안도 지방은 주현을 표기한 부분이 바래 그 명칭을 판독할 수 없고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42개 주현명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지도는 8도 주현을 파악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우리나라 전역의 산천 형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둘째 목적이었다.

명종 때는 국가적인 지원 하에 대대적으로 지도제작사업을 추진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지도는 양성지와 정척이 합동으로 만든 『동국지도』를 기초도로 하여 제작된 지도인 듯하다. 정척은 이북 삼도를, 양성지는 하삼도의 산천 형세를 각각 10여 년 동안 조사하여 『동국지도』를 작성하였다. 다음의 (그림 5-6)은 『조선방역도』의 산천형세도이다.[42] 이와 같이 산계(山系)와 수

38) 『明宗實錄』 卷26, 15年 正月 癸未, (20)541c.
39) 『明宗實錄』 卷26, 15年 7月 甲申, (20)562c.
40) 『明宗實錄』 卷26, 15年 11月 庚申, (20)571b.
41) 『宣祖實錄』 卷7, 6年 3月 丙戌, (21)258b.
42) 산천형세도는 광우당(匡祐堂) 이우형(李祐炯) 씨의 제도(製圖)이다.



[그림 5-6] 『조선방역도』 산경도

계(水系)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이었다(홍이섭, 1949, 180).

이 지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방역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라는 것이다. 『동람도』는 해악독신과 명산대천 신들에게 제사지내는 34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의 형태에는 그리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혼일강리도』의 『조선도』는 고려시대의 『5도양계도』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북방지역이 소략하다. 이에 비하여 『조선방역도』는 해안선이 현재의 해안선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둘째, 두만강의 위치가 앞서 말한 두 지도보다 위도상으로 북쪽에 표기되어 현재 지도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셋째,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안선 주위의 조그마한 섬들까지도 거의 표기하였는데 왜 울릉도와 독도의 표시가 빠져 있을까? 이것은 이 지도가 대마도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지웠을 가능성이 크며 지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두 섬을 지운 흔적이 보인다.

넷째, 『조선방역도』는 8도 주현도이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보면 빠진 데가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 중 수원과 용인이 원으로 그려져 있으나 행정구역 명칭은 표기되지 않았다. 경상도는 청도와 울산의 주현 명칭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전라도에는 순천과 장흥의 주현 명칭이 안 보인다. 다만 흥양현 쪽에 병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명종 10(1555)년 을묘왜변 때 왜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병영인 듯하다.

다섯째, 만주지역과 대마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조선 전기까지 우리의 영토라는 의식이 있었다. 단지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워 공도(空島)정책을 써서 비워 두었는데 왜구들이 강점하였다고[43]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지도에는 대마도가 예외 없이 표기되었다.

만주지역까지 포함하여 그린 이유는 만주가 고구려의 구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라는 영토 의식이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지리학의 제일인자였던 양성지만 해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의 국경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를 '만리(萬里)의 나라'[44]라고 하였다. 또 노사신(盧思愼)이 쓴 『동국여지승람』 전문(箋文)에서도 우리의 국토가 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45] 또 서거정도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 고려는 서북지방은 압록강은 못 넘었지만 동북지방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해서 고구려지역을 더 넘었다[46]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만주까지 포함하는 만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 『조선방역도』인 것이다.

『조선방역도』의 문화적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43) 『世宗實錄』 卷4, 元年 6月 壬午, (2)321b.

44) 『高麗史』 卷56, 志10 地理志1, "惟我海東三面 阻海一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 『世祖實錄』 卷1, 元年 7月 戊寅, (7)70a, "吾東方世居遼水之東 號爲萬里之國……".

45) 盧思愼, 『東國輿地勝覽』 箋, "數萬里疆域之分".

46) 徐居正, 『東國輿地勝覽』 序, "但西北以鴨綠爲限東北以先春嶺界盖西北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첫째, 이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원본지도라는 것이다. 이 지도의 제작시기가 명종 12(1557)년으로 밝혀졌으므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지도들의 편년도 밝힐 수 있어 『조선방역도』는 절대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이 지도의 발견으로 정척과 양성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동국지도』의 윤곽을 어림할 수 있으며 조선 전기의 지도제작수준이 상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천 형세의 파악 등이 비교적 상세하였음도 알 수 있다.

셋째, 이 지도에서는 만주를 포함하여 그렸고 또 대마도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생각하였던 조선 전기의 영토 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6세기 유행했던 계회도 형식으로 제작된 이 지도는 16세기의 회화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태

참고문헌

박흥수, 1967, "李朝尺度에 關한 硏究," 大東文化硏究, 4, 199~260.
안휘준, 1990, 朝鮮繪畵史, 일지사.
홍이섭, 1949, 朝鮮科學史, 정음사.

2. 도별도의 제작

도별도는 도(道)를 단위로 제작한 지도이다. 도는 우리 문화, 생활권, 지역공동체의 중심 단위인 시 · 군을 묶는 상위 행정체계이다. 고려시대인 1018년에 오도양계제(五道兩界制)의 실시로 도제(道制)가 도입되었지만, 도제의 정착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 태종대에 정립된 지방행정제도이자 지방행정구역인 팔도제(八道制)와 군현제의 근간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 한국의 지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의 도는 태종 13(1413)년 조선의 행정체계로 정립된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 1896년에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남북도로 분리되었으나, 아직도 남북도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거나 공동체적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는 600년 가까이 유지된 셈이다(양보경, 200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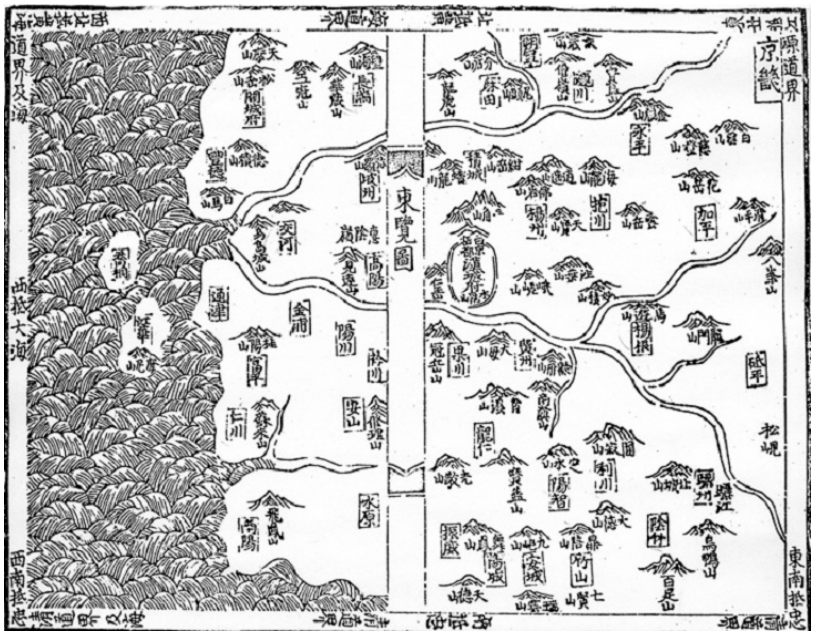
도는 행정단위로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체계였으나,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일정한 문화적 단위로 기능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라는 울타리에 적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제도가 지녔던 정치 · 행정적 기능 외에 문화적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각 시군 지역문화의 보편적 토대가 되었으며, 인적네트워크의 기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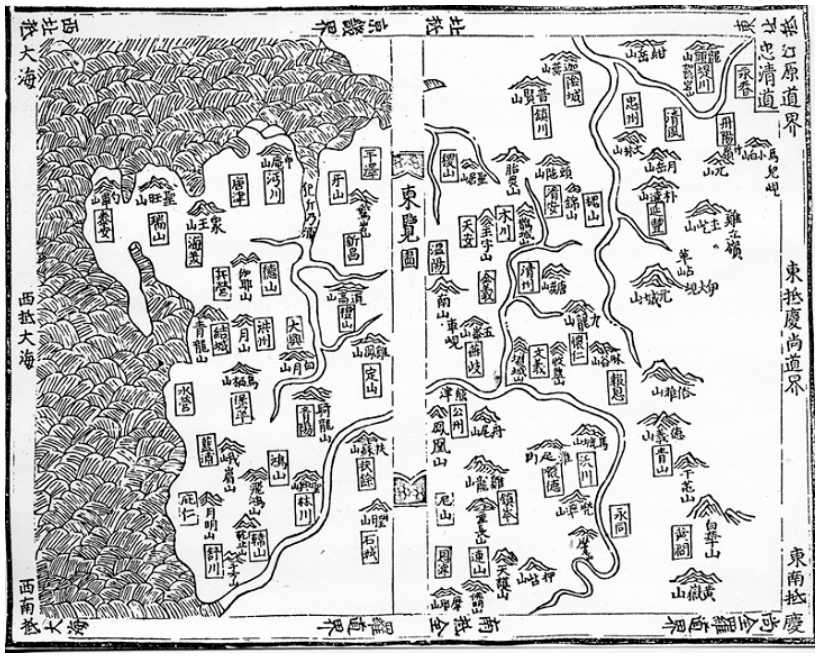
조선 건국 후 수 차례에 걸친 지리지 편찬 노력의 결과가 집결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1530년에 증보되어 1531년에 간행된 조선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이다. 이 책 속에 조선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전국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팔도의 각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들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도별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지도의 판심에 '동람도(東覽圖)' 로 판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동람도' 라 부르며, 후대에 이를 모사한 필사본 지도나 목판본 지도를 통칭 '동람도' 형 지도라 한다.

'동람도' 중 도별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는 지리지 안에 삽입된 지도였다. 따라서 팔도의 도별도의 크기가 모두 동일해 축척이 모두 다른 지도가 되었으며, 도별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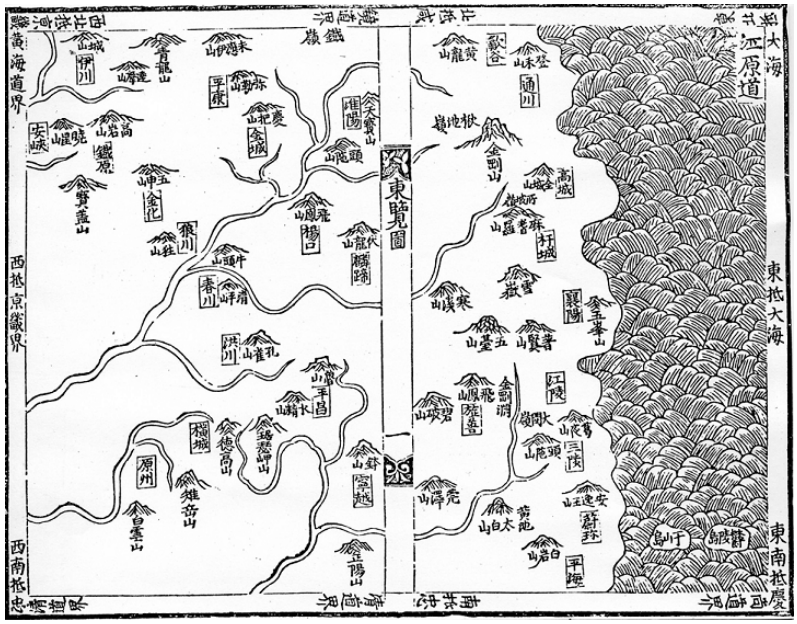
각 도의 도별도 내용을 보면, 세로로 긴 직사각형에 군현의 이름을 기입하고, 군현의 진산(鎭



[그림 5-7]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경기」



[그림 5-8]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충청도」



[그림 5-9]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강원도」

山), 하천, 주요 도서를 그렸다.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에는 북 · 동북 · 서북 · 동 · 동남 · 남 · 서남 · 서 등 8방위를 기입하고 연결되는 지역을 표시했다. 바다에는 파도문양 즉 수파묘(水波描)를 그려 채웠다(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동람도의 팔도총도는 각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는 주요 제사처를 나타낸 인문지리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도에 수록된 내용이 소략했다. 동람도가 매우 간략했던 것은 지도가 독립된 지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지리지의 부도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도의 민간 소유를 금했다고는 하지만, 조선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민간에서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또 목판으로 간행된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보급되면서 책 중에 포함된 지도들은 그 파급효과가 컸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독립된 목판본 지도가 제작되었으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동국지도(東國地圖)』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 수록된 부도로서의 성격을 지닌 '동람도'와 달리 설명 부분인 지리지 부분이 제외된 독립된 지도책이며,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지도로 추정된다(양보경, 1991). 이 지도의 가장 큰 의의는 독립된 도별 지도책이 목판으로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

을 보여주는 점이다. 이처럼 목판본으로 지도를 인쇄하였다는 것은 당시 이 지도가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도에 대한 수요도 일정 규모 이상이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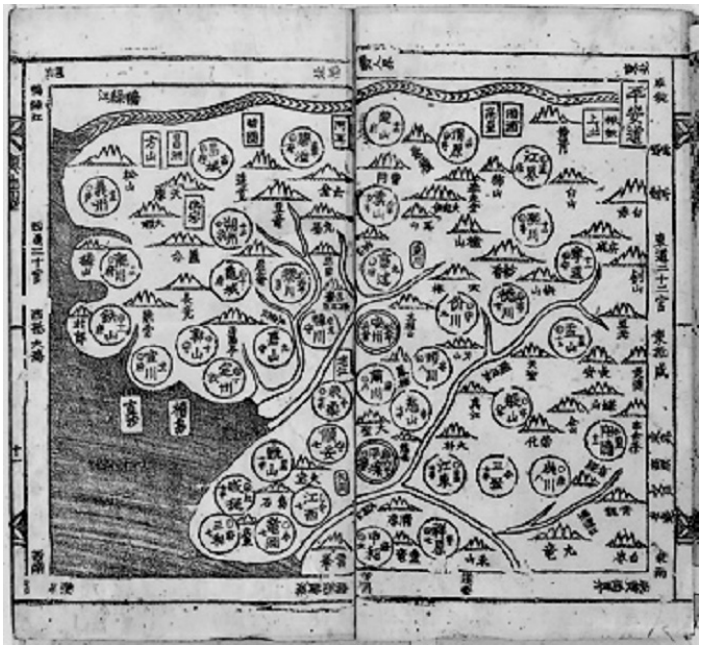
『동국지도』는 각도마다 도별도(1장 2면)와 지계리수(地界里數, 1장 2면) 총 16장 32면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그림 5-10). 지계리수는 도내 각 군현의 명칭과 서울로부터의 거리, 인접 지역까지의 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방에 두 줄의 선을 그어 내도곽과 외도곽을 그리고, 두 선 사이의 여백에는 그 도면의 변두리 지역과 연결되는 인접한 도의 군현 명칭을 기록하여 도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군현 명칭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 그 안에 기록하였으며, 사각형의 네 변에 군현의 별호(別號), 좌우도 소속, 군현의 품계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각 군현의 진산(鎭山)을 비롯한 주요 산의 모습과 산의 명칭을 기입하였다. 바다에는 조선전기 지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도 무늬를 그려 넣었다. 지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형태는 '동람도'와 유사하지만 양 지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동국지도』가 '동람도'와 다른 점은 첫째, 각 군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첨가한 점이다. 즉 군현의 명칭 옆에 군현의 별칭, 군현의 품계, 좌우도 · 동서도 · 남북도의 소속관계 등을 기록하고, 지도의 사방 연결지역도 매우 자세하게 표시했다. 둘째, 붉은 선으로 도로를 그려 넣고, 각 도의 관찰사영에 역시 붉은 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점이다. 그러나 이는 붓으로 그린 것으로서, 목판지도를 만들 당시가 아닌 후대에 첨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지도의 도곽선 위쪽에 도로, 군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기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동람도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도 상단에 각 도의 찰방(察訪), 첨사(僉使), 만호(萬戶), 권관(權管)의 명단이 쓰여 있다. 또 이들이 설치된 지역과 좌우도 소속관계, 소재군현, 본읍까지의 거리, 그리고 찰방의 경우에는 소속 역, 즉 속역(屬驛)의 수 등 군사상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여백을 이용하여 첨가한 것이 아니다. 전체 도면의 상단 부분을 미리 일정하게 분배하여 써 넣은 것으로 보아 이 지도를 만들었던 주요 목적이 각 지역의 도로와 역 · 진보 등 군사시설의 분포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지계리수」 항목을 만들어 각도의 군현의 상태와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점이다. 「지계리수」의 앞부분에는 도내의 군현총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군현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수도인 한성부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였는데, 시간거리와 절대거리의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병용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을 '이일(二日) 오식십이리(五息十二里)'로 표시하였다. '2일'은 서

[그림 5-10] 『동국지도』 중 「평안도」



[그림 5-11] 『지도서』 중 「평안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06), 66.

울로부터 이틀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시간거리를 나타낸 것이며, 일식(一息)이 약 30리를 가리키므로 '오식십이리(五息十二里)'는 서울에서 162리 떨어진 곳임을 절대거리로 표시한 것이다. 이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인접하고 있는 군현의 이름과 인접 지역까지의 거리를 기록하여 군현의 크기와 면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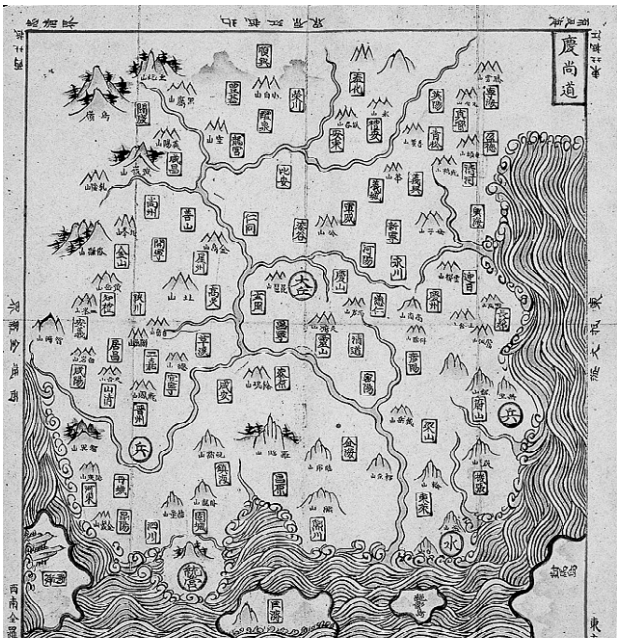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동람도'를 기본으로 하고, 지도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추가한 '동람도'형 도별도들이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다. 특히 이들 지도는 주로 목판본 지도책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판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지도이용자층이 크게 확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찬, 1989;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들 동람도형 지도책은 도별도가 중심이었다. 이 지도들은 '동람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렸으나 내용은 각기 상이하며, 도로 · 역도 · 진보 · 포구(浦口) · 일정(日程) · 군현의 품계, 그리고 주기를 첨기한 경우 간략한 연혁, 진보(鎭堡), 산성(山城), 민호(民戶), 전결(田結), 고적 등 여러 내용과 정보를 보완하여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지도서(地圖書)』(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중에 포함된 「평안도」 지도를 보면, 각 군현의 이름이 표시된 원의 좌우에, 서울에서 며칠 걸리는 거리인지를 나타내는 시간거리인 일정(日程)과 군현의 품계를 기록했다. 한 예로 평안도 의주는 서울에서 13일 거리이며, 부윤이 파견되는 읍격(邑格)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1). 평안도에서 서윤과 부윤이 파견되었던 평양과 의주를 제외하면, 모든 군현의 품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즉 종3품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도호부는 '부(府)', 종3품 목사가 파견되는 목에는 '목(牧)', 종4품 군수가 파견되는 군에는 '수(守)', 종5품 현령이 파견되는 현에는 '령(令)',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현에는 '감(監)'으로 표시해 군현의 품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해좌승람(海左勝覽)』(영남대박물관 소장)은 채색필사본 '동람도'식 지도첩이다(그림 5-12). 이 지도의 뒷면에는 도별 민호 · 전결 · 군정자료, 각 군현에서 사방경계에 이르는 거리와 서울에서의 거리 등 간략한 지지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는 표현기법 면에서 독특함을 보여 주는데, 특정 산들을 수목을 그려 넣어 입체감을 나타내고, 멀리 배경이 되는 산들은 몰골법으로 처리하여 회화적인 기법을 가미한 민화풍 지도이다.

본래의 「동람도」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해 이들 대부분의 '동람도'형 지도첩이나 지도책들은 지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독립된 지도집의 성격을 지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이에 따라 지도편찬자가 필요로 하는 도로, 거리, 각종 시설 등



[그림 5-12] 『해좌승람』 중 「경상도」

자료: 영남대학교 박물관(1998), 93.

[그림 5-13] 『여지도』 중 「강원도」

자료: 서울역사박물관(2006), 59.

이 추가되어 지도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음이 눈에 띤다. 일부 지도에서는 지도가 주가 되고, 지지적인 내용을 지도의 하단에 수록하여 지도를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만들어 지도와 지지가 지도 중심으로 결합된 양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그림 5-13)

2) 동국지도와 도별도

조선 초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된 국가적인 지도제작사업에 의해 제작되었던 도별도들은 정확하고 사실적인 지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물로 전하는 지도가 없어 기록상으로만 확인될 뿐이다.

조선 건국 후 수도가 이전되고, 수도의 위치 변화에 따른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재편, 새로운 지역 편제에 따른 정보 파악의 필요성, 세종대까지 계속 북쪽 국경지방의 영토확대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공간정보 파악과 정비가 요구되었다. 지역을 파악하는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지도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부터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도별도는 그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태종대에 개편된 군현제와 새롭게 획정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세종대에는 각 군현 단위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편찬했다. 8년에 걸친 지리지 편찬 사업으로 조선의 각 지방에 대한 자료수집이 되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도 만들었다(『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1월 기묘).

세종은 조선의 정치적 · 사회적 안정을 위해 북방의 여진족과의 싸움을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했다. 세종은 압록강 일대와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을 두 강 북쪽으로 몰아내고 두 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며 각각 4군과 6진을 설치하였다. 그 준비와 정복 후의 정비 작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과 마을 등의 파악은 필수적이었다. 동북방의 여진정벌을 결심한 세종은 세종 16(1434)년 4월에 옛 문헌과 역사지리에 해박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개척지를 비롯한 함길도(咸吉道, 후의 함경도) 전역의 지도를 완성하고, 그 지도를 관찰사 김종서와 병마절도사 성달생에게 보내 다시 여러 폭을 복사하여 감영(監營) 및 변방 군진(軍鎭)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또 세종 18(1436)년에는 정척에게 함길도와 평안도 등을 살펴서 산천형세를 그리도록 하였으며(『세종실록』 권 71, 세종 18년 3월 을축), 문종 원년(1451)년에 정척이 양계(兩界) 지방을 그린

대도(大圖)와 소도(小圖)를 바쳤다(『문종실록』 권 5, 문종 즉위년 12월 무술). 양계는 북계(北界)인 평안도와 동계(東界)인 함경도를 말하며, 고려시대에 이들 지역을 양계로 부른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이 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군사시설들이 설치되어 특별 관리를 한 곳이었다.

"이 앞서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가 자못 서로 틀린 곳이 꽤 있으므로 이제 이미 고쳐 그렸으니, 각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의 향배처소(向排處所)와 산천내맥 · 도로의 원근리수(遠近里數)와 그 사면의 이웃 고을의 사표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 · 군에 차례로 폭을 이어 올려 보내서 참고에 갖추도록 하라"(『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경자)는 호조에 대한 세종의 명은 조선 초기의 지도제작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즉 각 군현의 수령들이 해당 지역의 지도를 자세하게 그려, 각도의 관찰사에게 지도를 보내 대조, 완성하고, 이를 다시 각 군현에 보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지도 제작의 가장 기본은 군현 단위의 군현지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별도, 전국지도 등 넓은 지역의 지도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세조도 지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양성지는 단종 원년(1451)년에 수양대군의 명을 받고 하삼도(下三道)의 산천형세를 조사하였다(『단종실록』 권 12, 단종 2년 10월 신묘; 『단종실록』 권 13, 단종 3년 2월 을유). 세조는 즉위 후 다시 양성지에게 지리지 편찬과 지도 제작을 하도록 하여(『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8월 을묘), 세조 9(1463)년에 정척과 양성지는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완성하였다(『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2월 병인). 『동국지도』는 조선 초기 국토의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변화를 집약해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전국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도는 다양한 군현지도와 도별도를 기초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양계 지방의 지도 외에 도를 대상으로 만든 도별도를 꼽아 보면, 양성지의 『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 『제주삼읍도(濟州三邑圖)』, 어유소(魚有沼)의 『영안도연변도(永安道沿邊圖)』, 이순숙(李淳淑)의 『평안도연변도(平安道沿邊圖)』 등이 『조선왕조실록』에 특별히 지적되어 있다(『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임자). 『조선왕조실록』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었던 조선 초기의 도별도는 주로 평안도(또는 영안도로도 부름), 함경도(또는 함길도로도 부름) 등 북방 국경지역과 제주도 등 남쪽 변경지방의 지도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세종대의 도별도, 군현지도 제작 과정을 볼 때 전국의 군현도를 종합해 도별도로, 도별도를 종합해 전국도를 편찬하는 지도 제작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 병자호란 등 여러 전란으로 조선전기에 제작된 도 단위의 상세하고 사실적

인 도별도, 군현 단위의 군현도는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동람도' 및 동람도 유형의 지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양보경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

양보경, 1991, "목판본 동국지도의 편찬시기와 의의," 규장각 14, 서울대도서관, 1–28.

_____, 2004, "조선시대의 도별지도," 측량, 2004(11 · 12), 테마기행/지도이야기(6), 66–72.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도판편, 자료편).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이찬, 1979, "동람도의 특성과 지도발달사에서의 위치," 진단학보 46 · 47합집, 44–51.

_____, 1980, "한국 지도 발달사," 한국지리(총론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107–126.

_____, 1989, "조선시대의 지도책," 한국측지학회지, 7(2), 69–84.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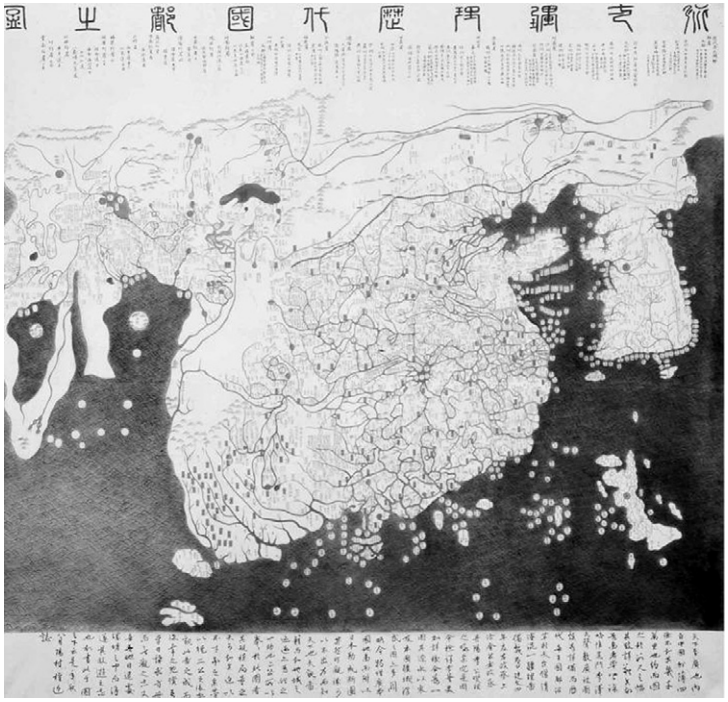
3. 세계지도의 제작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 발문과 기본적인 특징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로 약칭)는 1402년 의정부에서 만든 관찬 세계지도이다. 구대륙 전체를 망라하고 있으며, 현재 전하는 15세기 고세계지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최초의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들이 남아 전한다.[1] 일본 류고쿠대학에 소장된 『강리도』는 여러 개의 사본들 가운데 1402년과 가까운 시기에 모사된 것이다.

류고쿠대학 소장본에는 양촌 권근이 쓴 발문이 있어서 지도 제작 경위를 전해 준다. 이 글은 권근의 문집인 『양촌집』에도, 그리고 서거정의 『동문선』에도 실려 있다.



[그림 5-1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년, 류코쿠대학, 이찬모사본)

자료: 이찬(1991), 18-19.

"천하는 지극히 넓어서 안으로 중국으로부터 밖으로 사해에 닿도록 몇 천만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을 요약하여 몇 자 되는 폭에 그리면 자세하게 기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를 만든 것이 대개 소략했는데, 오직 오문(吳門)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敎廣被圖)』에 (그 넓은 천하가) 매우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역대 제왕의 국도(國都)와 연혁은 천태종 승려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에 실려 있다. 건문 4년(1402년, 조선 태종2) 여름에 좌정승 상락 김공(金士衡: 필자) · 우정승 단양 이공(李茂: 필자)가 정사를 하는 여가에 이 지도들을 검토하고, 검상 이회(李薈)에게 명하여 다시 더 상세히 교정하고 합하여 한 지도로 만들게 했다. 그 요수(遼水)의 동쪽 및 조선의 강역은 이택민의 지도에도 또한 누락된 것이 많았으므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를 추가하고 일본지도까지 덧붙여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어 볼 만하였다.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도적(圖籍)을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도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두 공이 이 지도에 정성을 다한 데에서도 그 규모와 국량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변변치 못한 재주로 참찬이 되어 두 공의 뒤를 따르다가 즐겁게도 이 지도가 완성된 것을 보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하게 여긴다. 내가 평일에 책을 연구하다가 (지도를: 필자) 보았으면 하던 뜻을 이미 이루었고, 또 내가 뒷날 (벼슬에서: 필자) 물러나 시골에 있으면서 그 와유(臥遊)하려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을 기뻐하며 지도 아래 쓴다. 이 해 가을 8월 양촌 권근이 지(誌)하다."[2)]

이 글은 『양촌집』 · 『동문선』에서 『역대제왕혼일강리도지(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라는 제목으

---

1) 『강리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니덤(J. Needham)이지만, 『강리도』연구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는 조선에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강리도 사본이 많이 남아 있다. 강리도에 관한 일본학계의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편이다. 교토대학교에서는 15~17세기에 그려진 지도를 통해 세계인식의 양상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성과는 藤井讓治 · 杉山正明 · 金田章裕 編, 2004, 繪圖地圖からみた世界像, 15 · 16 · 17世紀成立の繪圖 · 地圖と世界觀 中間報告書, 그리고 藤井讓治 · 杉山正明 · 金田章裕 編, 2007, 大地の肖像 – 繪圖 · 地圖が語る世界, 京都大學學術出判會) 참조. 또 중국 난징대학교에서는 2008년 여름 "中古東亞的世界輿圖"學術硏討會 – 以 "大明混一圖"和權近, 李薈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爲中心이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가운데 楊曉春, 高榮盛, 何啓龍, 裵祐晟의 논문은 난징대학 학술대회자료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양촌집 · 동문선에 실려 있는 내용이 『강리도』에 수록된 발문 내용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강리도』 발문에 上洛金公 · 丹陽李公으로만 적혀 있는 김사형 · 이무에 관한 기록이 양촌집 · 동문선에서는 上洛金公士衡 · 丹陽李公茂라고 되어 있다. 기록의 끝 부분도 같지 않다. 『강리도』 발문에 '是年秋八月陽村權近誌' 라고 된 부분이 『양촌집』 · 『동문선』에서는 '是年秋八月日誌' 로 되어 있다. 『강리도』 발문의 '今' '邇遐' '模' 는 『양촌집』 · 『동문선』에서 '方' '遐邇' '謨' 로 되어 있다. 그밖에 『강리도』 발문의 '於' 가 『양촌집』 · 『동문선』에서 '于' 로 바뀐 곳이 두 군데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촌집』 편찬 과정에서 『강리도』 발문의 내용이 윤문되었고, 수정된 내용이 다시 『동문선』에 실리게 된 것이다.

로 실려 있다. 『강리도』와 제목이 같지 않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양촌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글의 본문에 대해 윤문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목도 윤문 차원에서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楊曉春, 2008).[3]

발문에 따르면, 『강리도』는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청준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그리고 조선지도와 일본지도를 합성해서 만들었다. 지도제작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것은 이회이며, 권근은 완성된 지도에 발문을 붙였다.

양성지에 따르면 국초에 "이회의 팔도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 『강리도』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인 1402년 5월에는 의정부에서 본국지도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4] 『강리도』 제작 실무책임자가 이회였으며, 그 역시 정부의 관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강리도』의 조선전도로 쓰인 지도는 양성지가 말한 팔도도이며 의정부가 올린 본국지도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은 의정부 관원이던 박돈지가 1401년에 일본에 갔다가 일본지도 하나를 구해 온 사실을 전해 준다.[5] 많은 학자들이 이 사실을 근거로 『강리도』의 일본지도는 박돈지가 들여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돈지가 이 지도를 예조판서 허조에게 주었던 시점이 1420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의 내용은 『강리도』의 일본지도보다 자세한 것이었다(오상학, 2001). 『강리도』에 실려 있는 대마도의 위치도 문제이다. 『강리도』에서 대마도는 한반도에 가까운 쪽에, 일본 본토와 방위가 다른 쪽에 그려져 있다. 『강리도』에 그려진 대마도는 적어도 박돈지의 일본지도는 아닌 것이다.

행기도는 일본의 고승 행기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일본지도이다. 『강리도』의 일본지도는 이 행기도 유형에 속한다. 류고쿠대학 소장본에서 일본의 방위는 서쪽을 위로하고 있어서 실제와 다르다. 아마도 일본에서 유포된 행기도 가운데 서쪽을 위로 한 사본을 들여와서 지도에 그려 넣은 결과일 것이다.[6] 행기도는 불교식 삼국세계관, 그리고 일본을 신국으로 여기는 국토관이 내재된 지도이지만(黑田日出男, 2001), 일본열도를 바다바깥쪽 작은 섬나라로 묘사한 『강리도』에서 그런 의미를 읽을 수는 없다(Bae, Woo Sung, 2008).

---

3) 楊曉春(2008)은 '역대제왕혼일강리도' 라는 지도이름은 『양촌집』 간행 당시에 채택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4) 성종실록 성종 13년 2월 13일.

5) 세종실록 세종 20년 2월 19일. 박돈지 역시 의정부의 관원이었다. 『강리도』를 편찬할 즈음에 의정부 소속 관원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적극적인 지도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 일본에서 유포된 행기도가 모두 서쪽을 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본들은 북쪽을 위로 하고 있다. 다만 조선이 『강리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입수한 일본지도는 아마도 서쪽을 위로 한 사본이었던 것 같다.

(2) 지도의 내용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형상은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에서 온 것이다. 『강리도』 도면 상단에는 중원대륙에서 명멸했던 역대 왕조의 도읍지와 그 연혁에 설명이 자세한데, 이 정보들은 청준의 『혼일강리도』에서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지도들은 1399년 김사형이 건문제 즉위 축하를 위해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들여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들여왔지만, 정작 이 두 지도의 내용은 대부분 몽골제국시기의 것들이다. 몽골은 명의 환관 정화가 배를 띄우기 훨씬 전부터 구대륙 전체의 윤곽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해지』, 『제번지』, 『도이지략』과 같은 기록들은 몽골이 세계제국답게 놀랄만한 해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해 준다. 제국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사용했으며, 몽골은 그들에게 반드시 해외에서 견문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강리도』는 몽골제국의 지리지식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오류들이 눈에 띤다. 중원대륙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족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 밖의 오류들은 대부분 『성교광피도』의 원도가 되었을 이슬람계통 지리지식에서 온 것이다. 특히 구대륙의 해양에 관한 정보는 내륙에 관한 정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

몽골제국의 지리지인 『대원일통지』에도 이런 한계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다. 『대원일통지』의 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에 관한 설명에는 이슬람 계통의 지식이 활용되었다. 내륙지대는 몽골의 집현대학사 아자혼살리(阿剌渾撒里)가 가지고 있던 회회도자(回回圖子)에서, 해상지역은 회회(回回) 사람이 제공한 회회문자나마(回回文剌那麻)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회회문자나마의 지식은 회회도자에 비해 현저히 소략했다. 문제는 『대원일통지』 편찬을 주도했던 한족지식인들에게도 있었다. 그들은 드넓은 유라시아대륙보다는 중국 중심의 도상에, 해양지식보다는 내륙지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高榮盛, 2008). 『대원일통지』에 『성교광피도』와 같은 부도(附圖)가 실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金浩東, 2008), 적어도 『강리도』는 『대원일통지』의 한계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강리도의 동남아시아 · 인도 · 아라비아반도 표현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7] 베트남-타이만-말레이반도의 동서해안(말래카해협)에 이르는 해안은 『강리도』에서 교지(交趾)로부터 가단(哥旦) · 걸도(乞渡)에 이르는 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강리도』는 사실상 굴곡이 매우 심한 이 라인을 평평한 해안으로 묘사하였다.

인도와 아라비아에서도 왜곡은 심한 편이다. 『강리도』에서 가단(哥旦) · 걸도(乞渡)가 마주보는 곳에 조답만(鳥答蠻)이 있다. 이곳은 안다만(Andaman)제도이다. 그 옆으로 마팔아(馬八兒) 등 여러 지명이 들어 있는 큰 섬이 보인다. 이곳은 실제 인도대륙의 남부연안이다. 내륙쪽에 기재된 동천축국은 인도의 북쪽지방이다. 『강리도』는 육로로 도달할 수 있는 인도 북부지방은 대륙으로, 해로로 도달했던 인도 남부지방은 섬으로 표시했던 것이다. 마팔아(馬八兒) 아래쪽으로 노발(奴發)이라는 섬이 있고, 아라비아 대륙 좌측 상단에는 합단(哈丹)이라는 지명이 있다. 노발은 오만(Oman)을, 합단은 예멘의 항구도시 아덴을 표시한 것인데, 모두 위치에 오류가 있다. 강리도는 적어도 해안 및 항해지식에 관한 한 몽골제국 당대의 수준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8)]

(3) 조선지도와 『강리도』의 제작 시기[9)]

류고쿠(龍谷)대학 소장본을 통해 『강리도』의 조선지도에 대해 살펴보자. 『강리도』에 고려시대 지도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려의 수도 개성부로 이어지지만 조선의 수도 한양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산줄기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강리도』에는 이미 조선시대 지도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성 인근의 포구였던 벽란도는 없지만,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와 안변의 석왕(사)는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 동해안 쪽에 적도(赤島)는 이성계의 증조부인 이행리(李行里), 즉 익조(翼祖)의 일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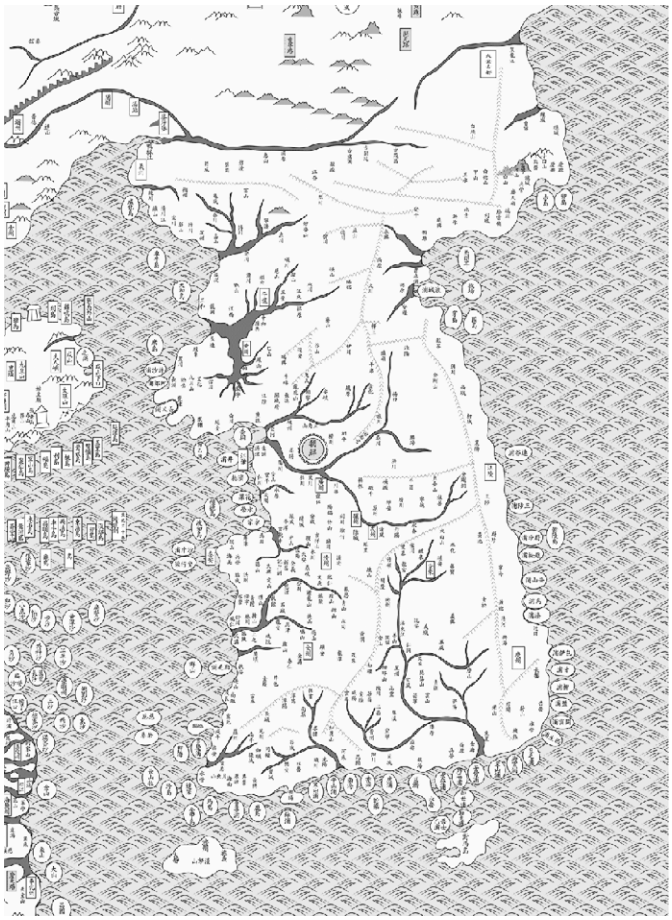
『강리도』의 조선전도에는 함경도의 남북병영(南北兵營), 그리고 경기도 ·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의 병영 · 수영이 파악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북방의 야인이나 왜구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동남 해안 쪽 포구가 집중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도 왜구 때문이다. 대마도를 보자. 왜구의 본거지로 인식되었던 이 섬은 한반도와 두 갈래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 방향들은 다시 병영 혹은 수영과 연결되어 있다. 경상도에서 강원도 연안에 섬처럼 표시된 곳들은 남해도, 거제도, 울릉도, 대마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섬이 아니라 포구를 표시하고 있다.

---

7) 『강리도』에 그려진 동남아시아 · 인도 · 아랍 지리의 착오에 대해서는 何啓龍(2008)을 참조. 何啓龍은 『강리도』가 송대의 낙후된 항해기술 및 지리지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 『강리도』에 실려 있는 만주 지명중에는 五國城처럼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들도 있다. 五國城은 송나라의 휘종과 흠종이 유폐된 곳, 혹은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생각되었다. 조선에서 제작한 대부분의 조선전도와 만주지도들은 강계부 벌등진 건너편, 혹은 함경도 회령 운두성터에 오국성을 표시했다.

9) 『강리도』의 제작 시기와 『강리도』의 조선전도에 관해서는 裵祐晟, 2008, "13~16世紀韓國人對自我與世界的認識及對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的闡釋" 참고.



[그림 5-15]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조선부분, 오길순 모사본)

출처: 오길순(2005)

이 포구들은 예외 없이 일본 방면의 왜구를 진압하거나 경계하기 위해 설치된 군사기지들이었다. 이 포구들에 관한 정보에서도 왜구에 대해 강경책과 금압책을 구사하던 15세기 조선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류고쿠 대학 소장본은 지명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혹은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각 소시기별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첫째 시기는 1458년 이전까지이다. 벽동 · 정의 · 대정 · 옥구 · 장연 · 자성 · 회령 · 경원 · 무창 · 위원 · 우예 · 삼수 등은 태종대에서 세종대 사이에 신설된 군현들인데, 류고쿠대학 소장본에 이 군현들의 이름이 모두 확인된다. 무창 · 여연 · 우예가 폐

지된 사실(1455년)도 반영되어 있다.

둘째 시기는 1459년부터 1469년까지이다. 1459년에 자성 · 예원(預原)이 폐지된 사실, 1466년에 수주(隋州)가 폐지되고 웅천(熊川)이 처음 설치된 사실은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1469년에 천녕이 여주에 합병된 사실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시기는 1469년에서 1480년 사이이다. 1469년에 여흥(驪興)을 여주(驪州)로 개명한 사실, 1480년에 전라도 순천에 좌수영을 설치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네 번째 시기는 1485년 이후이다. 1485년에 폐지되었다가 1566년에 복설된 경기도 수영은 수영(水營)이라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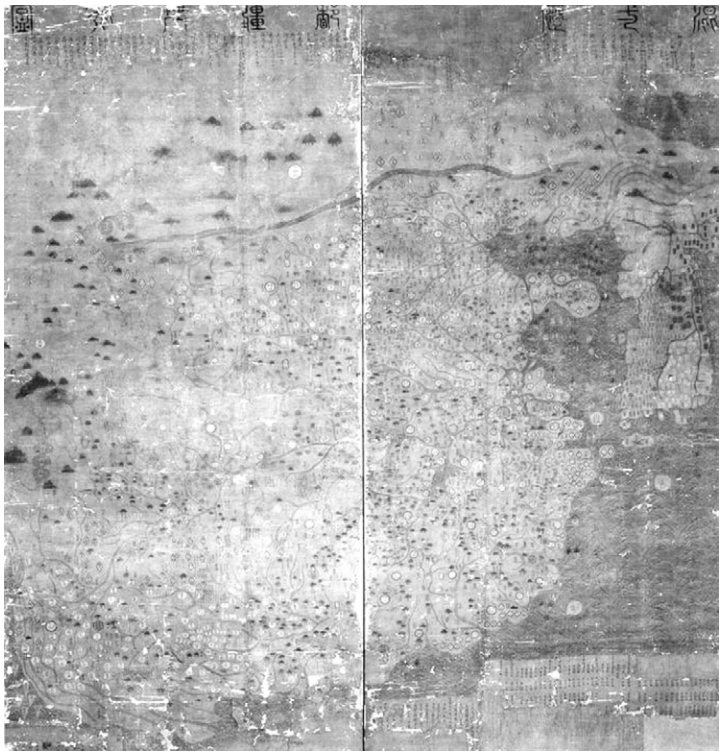
지명변화의 소시기별 일관성으로부터 류고쿠대학 소장본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본은 1480년에서 1485년 사이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필사시점에서 원도로 사용된 지도는 1456년에서 1458년의 변화상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다. 이 사실은 『강리도』가 적어도 1456년에서 1458년 사이에 한차례, 1480년에서 1485년에 또 한차례 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두시기는 각각 『동국지도』 ·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시기와 일치한다. 『강리도』는 세조와 성종이 조선의 역사문화 정리 작업을 시도했을 때 그 일환으로 복제되었던 것이다.

(4) 『강리도』의 다른 사본들, 『강리도』의 제목을 계승한 사본들

류고쿠대학 소장본이외에도 『강리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 필사되었다. 일본에는 텐리대(天理大) 소장본, 혼묘지(本妙寺) 소장본, 혼코지(本光寺) 소장본 등이 남아 전한다. 혼코지 소장본은 류고쿠대학 소장본과 유사하다. 텐리대 소장본과 혼묘지 소장본은 특히 원대의 중국 지명을 명대의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유라시아 대륙북단에 해안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오상학, 2001). 텐리대 소장본과 혼묘지 소장본도 류고쿠대학 소장본이 보여주는 구대륙 전체의 윤곽은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조선에서 『강리도』의 구대륙에 사해(四海)관념을 투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텐리대 소장본과 혼묘지 소장본은 『강리도』의 제목을 계승한 다른 사본들이 중앙아시아 이서 지역을 묘사하지 않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도 · 아라비아 · 유럽 · 아프리카는 중국을 중심으로 사해 관념을 표현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라는 제목을 가진 지도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같



[그림 5-16]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자료: 이찬(1991), 14-15.

은 외형을 한 지도들이 일본 묘신지(妙心寺), 일본 궁내청 등에도 전한다. 이 지도들은 명대에 제작된 양자기(楊子器) 지도에다 조선부분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이다. 양자기 지도는 중앙아시아 이서지역을 묘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의 내용은 명백히 『강리도』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지도 위에 큰 글씨의 전서로 제목을 쓴 것, 그 아래로 역대제왕국도에 관한 설명을 실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강리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조선지도 부분은 왜구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리도』와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윤곽은 여전히 『강리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배우성

참고문헌

오길순, 2005,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모사자료보고,” 한국과학사학회지, 27(2), 155–169.

오상학, 2001, 조선의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高橋正, 1995,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연구소사–일본의 경우–,” 문화역사지리, 7, 13–21.

藤井讓治 · 杉山正明 · 金田章裕 編, 2004, 繪圖地圖からみた世界像, 15 · 16 · 17世紀成立の繪圖 · 地圖と世界觀 中間報告書.

_____, 2007, 『大地の肖像–』 · 地圖が語る世界, 京都大學學術出判會.

暘曉春, 2008,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相關諸的關系–以文字資料爲中心的初步研究,” 中古東亞的世界輿圖 學術研討會 –以大明混一圖 和權近,李薈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爲中心 학술대회자료집, 102–118.

黑田日出男, 2001, 地圖と繪圖の政治社會史, 東京大學出版會.

Bae, Woo Sung, 2008, Joseon Maps and East Asia, *Korea Journal*, 48(1), Korean Nationalfor UNESCO, 46–79.

高榮盛, 2008, “混一圖海上地名雜識,” 中古東亞的世界輿圖學術研討會 –以大明混一圖和權近,李薈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爲中心 학술대회자료집, 20–23.

金浩東, 2008, “몽골帝國과 世界史– ‘팍스몽골리카의 實狀,” *The Mongol Empire and World History-Reality of ‘Pax Mongolica’*, 중앙유라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3–32.

何啓龍, 2008, “疆理圖錯亂了的東南亞印度及阿拉伯地理,” 中古東亞的世界輿圖學術研討會 –以大明混一圖和權近,李薈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爲中心 학술대회자료집, 23–32.

裵祐晟, 2008, “13~16世紀韓國人對自我與世界的認識對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的闡釋,” 中古東亞的世界輿圖” 學術研討會 –以大明混一圖和權近, 李薈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爲中心 학술대회자료집, 80–90.